



생생리포트



서울의 고용 동향

- I. 인구 및 취업자 동향
- II. 산업별 종사자 동향
- III. 산업별 노동수요와 임금 동향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정의영 연구원 altophone@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생생리포트

I. 인구 및 취업자 동향

1. 생산가능 인구는
정체된 가운데
고령층 인구만 급증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854만 9천 명이고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534만 9천 명으로 나타남. 취업자와 실업자는 각각 510만 2천 명, 24만 7천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를 기록함

〈표 1〉 서울시 인구현황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
15세이상인구	8,384	8,399	8,442	8,520	8,519	8,549
생산가능인구	7,426	7,400	7,398	7,437	7,384	7,382
경제활동인구	5,180	5,252	5,258	5,307	5,386	5,349
경제활동참가율	61.8	62.5	62.3	62.3	63.2	62.6
취업자	4,936	5,012	5,036	5,097	5,146	5,102
실업자	244	239	222	210	241	2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10년(95만 8천 명)부터 2014년(113만 5천 명)까지 18.5% 증가한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742만 6천 명에서 738만 4천 명으로 0.6% 감소함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 854만 9천 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86.3%인 738만 2천 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13.7%인 116만 7천 명
 - 서울시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표 2〉 서울시 연령별 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2010년	2014년
생산가능인구 (15~64세)	7,426	7,384
65세 이상	958	1,1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①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기준

- 2013년 기준 서울시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0.97명^①이며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10년 1분기 64.6에서 2015년 1분기 99.8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2. 고령층 고용은
확대된 반면,
청년층 고용은 감소

- 서울시의 2015년 1분기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p 낮은 59.7%이고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p 높은 4.6%로 나타남. 서울시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2015년 1분기 기준, 서울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만 7천 명(-0.3%)이 감소한 5,10만 2천 명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생산가능연령(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8.4%, 65.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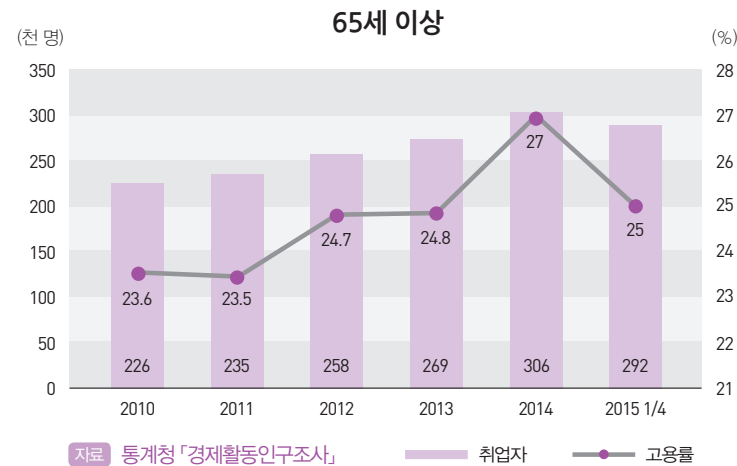
〈표 3〉 서울시 실업률, 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
실업률	4.5	4.7	4.6	4.2	4.0	4.5	4.6
고용률	58.1	58.9	59.7	59.7	59.8	60.4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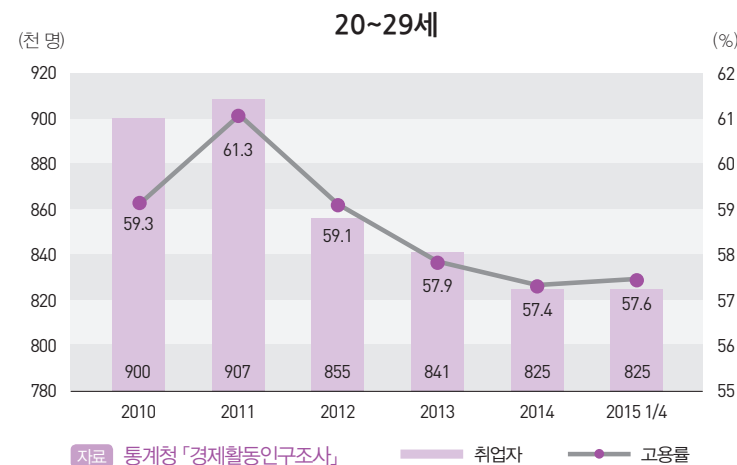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31만 5천 명으로 2010년에 비해 34.0%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 2010년 대비 3.4%p 상승한 27.0%로 나타남. 이로 미루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 2015년 1분기의 고령층(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만 3천 명, 고용률은 25.0%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이 각각 0.3%p, 1.0%p 소폭 감소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천 명 상승한 29만 2천 명



[그림 1] 고령층 취업자, 고용률 변화 추이

-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03만 3천 명에서 2014년 97만 2천 명으로 5.9% 감소하였고, 청년층 고용률은 2010년 43.6%에서 2014년 43.7%로 0.1%p 상승하였음.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주연령대인 20~29세 청년층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98만 3천 명에서 92만 2천 명으로 7.9%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2010년 59.3%에서 2014년 57.4%로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0년 8.4%에서 2014년 10.3%로 1.9%p 상승
 - 단, 2015년 1분기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한 44.2%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87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청년층 취업자, 고용률 변화 추이

- 경제의 중추인력이자 서울시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40대 취업자는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247만 7천 명이고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8.5%를 차지
 - 30~40대 취업자 수는 2010년 257만 9천 명에서 2014년 253만 6천 명으로 1.7% 감소
 - 전체 취업자 대비 30~40대 취업자 비중은 2010년 이래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고, 2014년 전체 취업자 대비 30~40대 취업자 비중은 49.3%으로 이는 2010년 52.3% 대비 3.0%p 감소한 수치

〈표 4〉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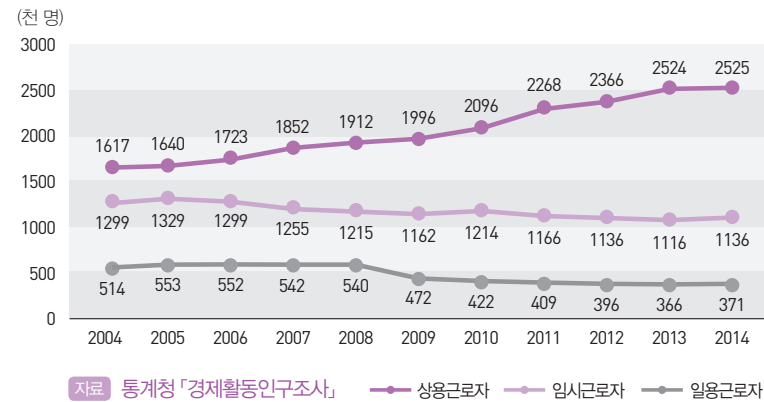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
계	4,936	5,012	5,036	5,097	5,146	5,102
15 ~ 29세	945	958	903	881	872	877
20 ~ 29세	900	907	855	841	825	825
30 ~ 39세	1,257	1,250	1,281	1,298	1,283	1,265
40 ~ 49세	1,322	1,323	1,283	1,282	1,253	1,212
50 ~ 59세	967	1,010	1,055	1,092	1,143	1,149
60세 이상	444	471	513	546	596	600
65세 이상	226	235	258	269	306	2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상용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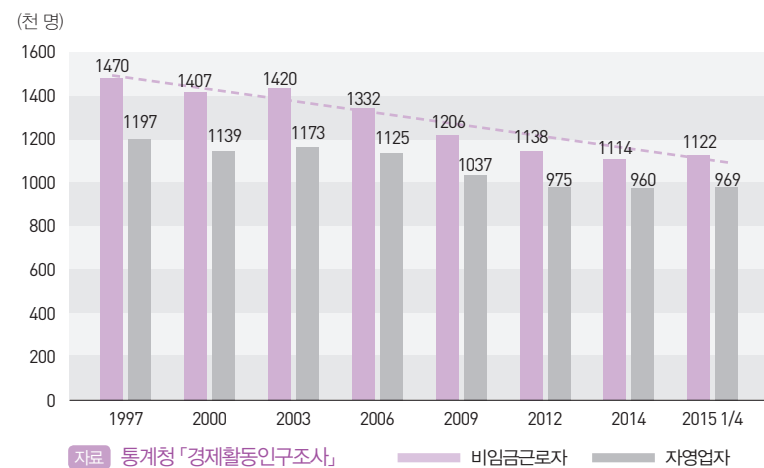
② 상용근로자는 ①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 설정된 자 또는 ②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내규에 채용되어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함.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혹은 일일 단위인 근로자를 지칭

- 서울시의 임금근로자는 2010년 373만 3천 명에서 2014년 403만 2천 명으로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398만 명을 기록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49만 명, 임시근로자는 110만 9천 명, 일용근로자는 38만 1천 명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0.1% 감소하고 7.6% 증가한 수치
- 2004년 이후 상용근로자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수는 대체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일자리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추세가 나타남
 -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사업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상용직 비중이 높은 분야의 고용 증가와 상용직 중심주의 기업 고용관행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서울시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추이

- 서울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2010년 120만 3천 명에서 2014년 111만 4천 명으로 4년간 7.4% 감소함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12만 2천 명이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2%를 차지함.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수는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5천 명(4.9%) 증가한 96만 9천 명
 - 2014년 서울시의 자영업자는 총 96만 명이며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6.3% 감소한 수치임. 자영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충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최고점(119만 7천 명)에 올랐으나 이후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내수 부진의 여파와 자영업자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신규 시장진입 위축 등을 이유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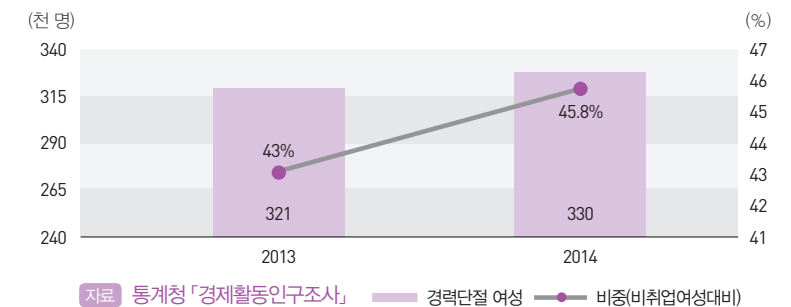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추이

4.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 주당근무시간의 감소

③
경력단절 여성 범위에
'가족 돌봄'이 포함

- 2014년 기준 서울시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44.3%인 227만 9천 명이며, 2015년 1분기 서울시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천 명 증가한 226만 5천 명
 - 2014년을 기준으로 178만 8천 명의 15~54세 기혼 여성(A)중 비취업 여성(B)은 72만 명이며 이 중 35만 5천 명이 경력단절 여성(C)임. 이는 전체 기혼 여성 대비(C/A) 19.8%, 비취업 여성 대비(C/B) 49.2%를 차지하는 수치
 - 여성 경력단절 범위에 '가족 돌봄'을 제외할 경우, 2014년 서울의 경력단절 여성은 총 33만 명이며, 이는 전체 기혼 여성 대비(C/A) 18.5%, 비취업 여성 대비(C/B) 45.8%를 차지하는 수치임. 2013년과 비교 시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9천 명 증가했으며,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2.8%p 상승



[그림 5] 경력단절 여성 증가 추이

- 주당평균취업시간^④은 2004년 48.5시간에서 2014년 44.1시간으로 4.4시간 감소
 - 2004년에는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36~44시간 취업자가 전체의 36.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2004년 이후로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5] 주당평균취업시간에 따른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

	2004년	2014년	증감률
54시간 이상 취업자	1,762	1,108	-37.1
36~44시간 취업자	1,161	1,878	61.8
36시간미만 취업자	589	706	19.9

④
주당평균취업시간은
1주일 동안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산업별 종사자 동향^⑤

- 서울시 지역 총생산(GRDP)^⑥은 2008년 279조 455억 원에서 2013년 308조 5,562억 원으로 10.6% 증가하고, 서울의 총 종사자수는 같은 기간 12.4% 증가
 - 2013년 지역 총생산을 기준으로 각 산업이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16.8%), 사업 서비스업(12.2%), 금융 및 보험업(11.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10.1%), 부동산업 및 임대업(10.0%), 제조업(5.5%)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서울시 종사자 수는 2008년 407만 9천 명에서 2013년 458만 5천 명으로 12.4%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체 수는 72만여 개에서 78만 5천 개로 9.1% 증가함

〈표 6〉 서울시 주요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억 원, %]

	2008년	2013년 (잠정치)	주요 산업별 GRDP 성장률 (2008~2013)	주요 산업별 GRDP 비중 (2013년 기준)
지역 총생산	2,790,455	3,085,562	10.6	100
제조업	150,119	168,555	12.3	5.5
건설업	85,741	70,539	-17.7	2.3
도매 및 소매업	416,379	519,661	24.8	16.8
운수업	79,943	91,461	14.4	3.0
숙박 및 음식점업	89,939	85,556	-4.9	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3,819	312,519	23.1	10.1
금융 및 보험업	307,397	364,910	18.7	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0,014	308,701	2.9	10.0
사업서비스업	360,988	375,065	3.9	12.2
교육서비스업	135,759	137,534	1.3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6,401	121,895	26.4	4.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⑤ 서울시 지역 총생산과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의 실익이 있는 산업만을 선별적으로 분석함

^⑥ 이 절에서 지역 총생산은 2010년을 기준년 가격(연쇄)으로 하며 생산지수 역시 2010년(=100)을 기준으로 한 불변지수 값으로 함. 또한, 보다 세부적인 산업별 분석을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와 같이 2015년 현 시점에 2013년 이후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은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시계열 범위가 주로 2013년으로 제한됨

〈표 7〉 서울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수	719,687	723,086	729,731	752,285	780,887	785,094
종사자수	4,079,277	4,177,336	4,487,357	4,498,312	4,541,393	4,585,09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전체 종사자 대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9.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7%)이 그 뒤를 이음
- 서울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문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가장 빠른 반면, 제조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함

〈표 8〉 서울시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2008년	2013년	종사자 수 성장률	종사자 수 비중 (2013년 기준)
전 산업	4,079,277	4,585,090	12.4	100
제조업	294,649	272,972	-7.4	6.0
건설업	232,612	286,131	23.0	6.2
도매 및 소매업	768,012	826,015	7.6	18.0
운수업	249,225	256,611	3.0	5.6
숙박 및 음식점업	393,802	443,079	12.5	9.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5,087	314,316	23.2	6.9
금융 및 보험업	241,494	257,803	6.8	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052	139,538	-1.8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5,314	399,412	15.7	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2,163	360,854	19.4	7.9
교육 서비스업	270,794	313,846	15.9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5,599	280,428	36.4	6.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13년 기준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에 각각 28만 명과 31만 4천명이 종사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각각 36.4%, 23.2% 증가한 수치
- 2013년에 제조업에는 27만3천 명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는 14만 여 명이 종사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각각 7.4%, 1.8% 감소한 수치

1. 도·소매업은 생산, 고용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 점유

- 서울은 지역 총생산과 종사자 수 측면에서 도·소매업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가장 높음
 - 서울의 도·소매업 지역 총생산은 2008년 41조 6379억 원에서 2013년 51조 9661억 원으로 24.8% 상승함. 지역 총생산에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2009년 14.7% → 2013년 16.8%)
 - 2013년 서울시 도·소매업 부문의 매출액은 2008년에 비해 38.1% 상승(268조 8,591억 원 → 371조 3,783억 원)하였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의 연간 급여액은 15.9% 증가함(14조 6,851억 원→17조 227억 원)
-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서울 소재 도·소매업 종사자수는 76만 8천 명에서 82만 6천 명으로 7.6% 증가함.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종사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은 18.8%에서 18.0%로 0.8%p 감소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소매업 사업체수는 20만 9천 개에서 22만 7천 개로 8.4% 증가하였음. 도·소매업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08년 3.7명에서 2013년 3.6명으로 소폭 감소함
 - 도·소매업은 재래시장 등의 위축과 소규모 업체의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 요인과 업종의 대형화, 새로운 유형의 사업·시장 출현으로 인한 고용 증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3%가량을 차지함(2008년 3.2% → 2013년 2.8%).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GRDP는 2008년 8조 9,939억 원에서 2013년 8조 5,556억 원으로 4.9% 감소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액은 2008년 22조 2,378억 원에서 2013년 23조 7,260억 원으로 6.7%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17조 9,016억 원에서 21조 8,072억 원으로 21.8% 증가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2.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성과는 저조하나, 고용은 평균 정도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9.7%를 차지하며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39만 4천 명에서 44만 3천 명으로 12.5% 증가함

- 사업체 수는 2008년 11만 4천 개에서 2013년 12만 4천 개로 8.3% 증가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8년 대비 0.1명 증가한 3.6명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에서 많은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종사자 규모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이 적어 향후 지속적인 고용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9〉 서울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

항목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8년	2013년	성장률	2008년	2013년	성장률
GRDP (비중)	416,379 (14.9)	519,661 (16.8)	24.8	89,939 (3.2)	85,556 (2.8)	-4.9
사업체수	209,131	226,629	8.4	114,115	123,634	8.3
종사자수	768,012	826,015	7.6	393,802	443,079	12.5
매출액	2,688,591	3,713,783	38.1	222,378	237,261	6.7
영업비용	2,514,092	3,545,895	41.0	179,015	218,072	21.8
연간 급여액	146,851	170,227	15.9	36,610	41,569	13.5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 「지역소득통계」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빠른 고용 증가

- 서울시 지역 총생산에서 도·소매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36조 988억 원에서 2013년 37조 5,065억 원으로 3.9% 증가함
 - 2008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서울시 GRDP의 12.9%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이후 비중이 소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전체 GRDP의 12.2%를 기록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8.2% 상승(12조 5,647억 원 → 16조 1,119억 원)하였고, 연간 급여액은 33.0% 증가함(5조 102억 원 → 6조 6,626억 원)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30만 2천 명에서 36만 1천 명으로 19.4% 증가함. 전체 종사자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4%에서 2013년 7.8%로 0.4%p 상승

-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9천여 개에서 1만 2천여 개로 38.0% 증가하였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33.4명에서 28.9명으로 4.5명 감소함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체로 특별한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노동집약적인 업종 특성상 구인 수요가 많음. 최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은퇴 이후 고령층이 활발히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층 노동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서울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산업의 중요도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10〉 서울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

항목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008년	2013년	성장률	2008년	2013년	성장률
사업체수	932	1,903	104.2	8,123	10,592	30.4
종사자수	69,876	85,523	22.4	232,287	275,331	18.5
매출액	22,269	27,815	24.9	103,377	133,304	28.9
연간 급여액	10,505	14,225	35.4	39,597	52,401	32.3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모두 가장 빠른 성장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3년 지역 총생산은 12조 1,859억 원이며 이는 2008년 대비 26.4% 상승한 수치로 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서울시 전체 총생산의 4.0% 수준(2013년 기준)으로 아직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008년 17조 1,192억 원에서 2013년 24조 1,308억 원으로 41.0% 증가하였으며, 연간 급여액은 2008년 5조 5,399억 원에서 2013년 8조 2,830억 원으로 49.5% 가량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2008년 20만 6천 명에서 2013년 28만 명으로 36.4% 상승하여 산업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종사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5.0%에서 2013년 6.1%로 1.1%p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8년 2만 개에서

2013년 2만 5천 개로 23.4% 상승하였으며 업체당 종사자수는 10.2명에서 11.2명으로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종사자 수, 생산지수, 매출액, 연간급여액 등 많은 부문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의 육아 보육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 진전과 같은 요인이 결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생산과 고용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11〉 서울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

항목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8년	2013년	성장률	2008년	2013년	성장률
사업체수	14,784	16,438	11.2	5,456	8,546	56.6
종사자수	156,725	193,981	23.8	48,874	86,447	76.9
매출액	151,090	211,663	40.1	20,102	29,646	47.5
연간 급여액	47,635	68,581	44.0	7,763	14,249	83.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금융 및 보험업은 산업성과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25조 3,819억 원에서 2013년 31조 2,519억 원으로 23.1% 증가함. 이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높은 성장 수준임. 서울시 전체 지역 총생산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0.1%이며 이는 2008년 대비 1.0%p 상승한 수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008년 40조 4,900억 원에서 2013년 55조 9,832억 원으로 38.3% 상승하였고, 연간 급여액은 7조 4,626억 원에서 10조 563억 원으로 34.8% 상승함
- 2013년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문에서는 2008년 대비 23.2% 상승한 31만 4천 명이 종사함. 이는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6.9%로 2008년 보다 0.6%p 높은 수준임. 한편, 종사자수 증가율 23.2%는 전 산업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8년 1만 2천 개에서 2013년 1만 9천 개로 59.7% 증가하였고, 사업체당 중

사자 수는 21.2명에서 16.3명으로 4.9명 감소함

- 2013년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의 GRDP 비중을 보여주는 타 산업과 비교 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총생산, 종사자 수 모두에서 빠른 수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과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동반성장형' 산업으로 판단됨.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정보 서비스업의 성장이 주목할 만함

〈표 12〉 서울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개, 명]

항목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사업체수	7,070	10,742	1,837	2,823	164	261	1,280	3,012	778	1,493
종사자수	138,944	155,797	16,323	24,136	14,455	17,348	32,370	57,659	19,752	28,097
매출액	227,944	254,966	24,646	45,264	45,470	66,250	70,200	141,364	36,641	51,988
연간 급여액	47,192	51,967	3,558	5,642	6,160	10,090	11,041	22,601	6,675	10,263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 금융 및 보험업은 2008년 이후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11% 내외를 차지함. 금융 및 보험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에 30조 7,397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11.0%임. 2013년 지역 총생산은 2008년 대비 18.7% 증가한 36조 4,910억 원으로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11.8%를 차지
- 금융 및 보험업의 종사자 수는 2008년 24만 1천 명에서 2013년 25만 8천 명으로 6.8% 상승함
 -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9천여 개에서 1만 개로 12.3% 상승하였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6.7명에서 25.4로 1.3명 감소함. 전체 종사자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0.4%p 하락한 5.6%를 기록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에 비해 종사자 규모가 작은 편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 마진 감소와 주식 거래 규모 감소로 인한 수익 기반 약화, 국제

경제 리스크 증가로 인한 산업 불안정성 증가, 업종 특성상 낮은 구인 수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슷한 GRDP 규모의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됨

6.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 사정 악화 / 교육 서비스업은 성과 부진

- 건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8조 5,741억 원에서 2013년 7조 539억 원으로 17.7% 감소했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같은 기간 30조 14억 원에서 30조 8,701억 원으로 2.9% 소폭 증가에 그침
 - 2013년 기준 건설업은 서울시 지역 총생산의 2.3%를 차지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0.0%를 차지함
 - 건설 수주액은 2008년 21조 2,429억 원에서 2013년 10조 7,881억 원으로 50%가량 급감하였고, 부동산 거래 건수 역시 2008년 이후로 상당히 위축됨
- 건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23만 3천 명에서 2013년 28만 6천 명으로 23% 증가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6.2% 비중을 차지함
 - 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업체들이 플랜트 공정 등으로 해외 진출을 늘리면서 상용근로자의 수는 늘어났으나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음. 즉, 관리직 인원은 늘어났으나 국내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됨

〈표 13〉 서울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개, 명, 동(호) 수]

산업별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설업	GRDP	85,741	84,117	79,689	73,223	68,616	70,539
	건설 수주액	212,429	189,826	175,870	144,801	99,806	107,881
	사업체수	19,691	19,354	19,077	20,156	20,767	21,027
	종사자수	232,612	222,352	381,531	359,900	309,602	286,1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GRDP	300,014	300,655	305,223	312,031	309,214	308,701
	주택거래 건수	147,023	138,016	88,737	114,315	83,257	111,889
	사업체수	35,950	35,979	35,100	35,207	35,214	34,629
	종사자수	142,052	148,312	142,505	144,271	141,124	139,53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2008년 14만 2천 명에서 2013년 14만 명으로 종사자 수가 1.8%가량 감소하였고, 서울시 전체 종사자 중 이 업종이 차지하는 종사자 비중도 같은 기간 3.4%에서 3.0%로 0.4%p 감소
 - 같은 기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 수는 3만 6천여 개에서 3만 5천여 개로 3.7% 감소함. 업체 간 과당 경쟁, 부동산 시장 경기 불황이 결합하여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기존 업체들은 시장에서 철수한 결과 종사자, 사업체수 모두 감소하였음
- 교육 서비스업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13조 5,759억 원에서 2013년 13조 7,534억 원으로 1.3% 증가함.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4.5%로 0.4%p 감소
-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27만 1천 명에서 2013년 31만 4천 명으로 15.9% 증가했으며 2013년 기준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6.8%를 차지함.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08년 2만 9천 개에서 2013년 3만 2천 개로 11.7% 정도 증가
 - 교육 서비스업의 생산은 종사자, 사업체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함. 전반적으로 업계가 공급 과잉 상태인 가운데 내수 불황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 감소, 저출산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Ⅲ. 산업별 노동 수요와 임금 동향

1.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모두 증가

-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서울의 채용인원 수는 구인인원 수에 비해 증가세가 빠름
 - 2014년 구인인원은 20만 7천 명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61.1% 증가했으며, 채용인원은 10만 6천 명에서 18만 6천 명으로 75.1% 증가하여 채용인원의 증가세가 빠름
 - 2014년 채용률은 89.8%로 5년 전인 2009년 82.6%에 비해 7.2%p 상승하여 인력공급 상황 개선

〈표 14〉 서울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추이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2009~2014)
구인인원	128,625	168,824	158,571	161,463	183,606	207,270	61.1
채용인원	106,299	144,417	132,167	140,905	160,893	186,140	75.1
채용률	82.6	85.5	83.3	87.3	87.6	89.8	7.2

7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7

2. 구인인원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가장 빠름

- 서울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구인인원 수가 4만3천 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2014년 서울 산업별 구인인원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0.6%),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서울에서 2009년 대비 2014년 교육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139.1%로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음
 - 서울에서 2009년 대비 2014년 구인인원은 교육 서비스업(139.1%), 운수업(125.8%), 도매 및 소매업(10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9.0%) 부문의 증가세가 가장 빠르며, 제조업(-13.7%), 건설업(-8.5%) 부문은 감소

〈표 15〉 서울시 주요 산업별 구인인원 추이

[단위: 명, %]

	2009년	2014년	구인인원 증감률 (2009~2014)	구인인원 비중 (2014년 기준)
전 산업	128,625	207,270	61.1	100.0
제조업	8,698	7,507	-13.7	3.6
건설업	12,868	11,779	-8.5	5.7
도매 및 소매업	9,700	19,415	100.2	11.5
운수업	5,609	12,666	125.8	6.1
숙박 및 음식점업	9,858	14,446	46.5	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293	14,607	29.3	7.0
금융 및 보험업	5,807	6,225	7.2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07	4,131	47.2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45	15,325	49.6	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978	42,784	78.4	20.6
교육 서비스업	15,000	35,868	139.1	1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449	15,028	59.0	7.3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3. 금융 및 보험업 구인인원의 대부분은 채용되어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지고 있음을 시사

- 교육 서비스업의 채용인원 증가율이 2009년 대비 2014년 155.5%로 가장 빠르게 나타남
 - 서울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채용인원은 교육 서비스업(15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6.7%), 운수업(108.9%), 도매 및 소매업(10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6.3%) 부문의 증가세가 가장 빠르며, 건설업은 5.6% 감소
- 2014년 서울의 채용률^⑧은 금융 및 보험업이 99.5%, 교육 서비스업이 98.9%로 구인인원 대비 채용인원 비중이 높아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2014년 서울 산업별 채용률은 금융 및 보험업(99.5%), 교육 서비스업(9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5.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91.5%) 순으로 높음

^⑧
채용률
= 채용인원/구인인원 * 100

– 서울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3%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6.2%p), 제조업(14.2%p)의 채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운수업(-4.8%p), 숙박 및 음식점업(-2.9%p), 부동산업 및 임대업(-2.1%p)의 채용률은 감소

〈표 16〉 서울시 주요 산업별 채용인원 및 채용률 추이

[단위: 명, %, %p]

	2009년		2014년		채용인원 증감률 (2009 ~2014)	채용률 증감 (2009 ~2014)
	채용 인원	채용률	채용 인원	채용률		
전 산업	106,299	82.6	186,140	89.8	75.1	7.2
제조업	6,294	72.4	6,499	86.6	3.3	14.2
건설업	11,273	87.6	10,643	90.4	-5.6	2.8
도매 및 소매업	8,046	82.9	16,675	85.9	107.2	2.9
운수업	3,620	64.5	7,561	59.7	108.9	-4.8
숙박 및 음식점업	8,795	89.2	12,471	86.3	41.8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690	77.0	12,228	83.7	40.7	6.8
금융 및 보험업	5,566	95.8	6,193	99.5	11.3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77	91.8	3,704	89.7	43.7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32	74.5	14,221	92.8	86.3	1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077	75.4	39,165	91.5	116.7	16.2
교육 서비스업	13,885	92.6	35,473	98.9	155.5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63	93.8	14,377	95.7	62.2	1.9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4. 운수업의 미충원율^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적합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⑨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구인인원 * 100

- 2014년 서울의 미충원인원은 2만 1천 명이며 미충원율은 10.2%로 2009년 대비 7.2%p 감소
 - 2014년 미충원율이 높은 부문은 운수업(4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6.3%) 도매 및 소매업(14.1%), 숙박 및 음식점업(13.7%), 제조업(13.4%) 순
 - 미충원율이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많이 증가한 부문은 운수업(4.8%p), 숙박 및 음식점업(2.9%p), 부동산업 및 임대업(2.2%p) 순이며, 감소한 부문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3%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6.2%p), 제조업(-14.2%p) 순

〈표 17〉 서울시 주요 산업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명, %, %p]

	2009년		2014년		미충원인원 증감률 (2009 ~2014)	미충원율 증감 (2009 ~2014)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전 산업	22,326	17.4	21,130	10.2	-5.4	-7.2
제조업	2,404	27.6	1,008	13.4	-58.1	-14.2
건설업	1,595	12.4	1,136	9.6	-28.8	-2.8
도매 및 소매업	1,654	17.1	2,740	14.1	65.7	-2.9
운수업	1,989	35.5	5,105	40.3	156.7	4.8
숙박 및 음식점업	1,063	10.8	1,975	13.7	85.8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03	23.0	2,379	16.3	-8.6	-6.8
금융 및 보험업	241	4.2	32	0.5	-86.7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9	8.2	427	10.3	86.5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13	25.5	1,104	7.2	-57.7	-1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01	24.6	3,619	8.5	-38.7	-16.2
교육 서비스업	1,115	7.4	395	1.1	-64.6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86	6.2	651	4.3	11.1	-1.9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4년 서울 산업별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은 모두 운수업이 각각 5천 명,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산업 중 제조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구인인원이 34.7%로 감소하여 노동수요가 줄었지만 미충원율도 14.9%p 감소하여 노동공급이 좀 더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운수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구인인원이 125.8%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충원율이 35.5%에서 40.3%로 4.8%p 증가하여 적합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시사

5. 서울 월급여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액과 특별 급여액은 감소

⑩ 월급여액
: 상용정액급여 + 상용초과급여

⑪ 초과급여
: 연장(야간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⑫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4년 서울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⑩총액은 316만 9천 원으로 2009년 대비 21.9% 증가
 -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311만 4천 원으로 5년 전 대비 22.8%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⑪는 8만 5천 원, 특별급여^⑫는 47만 3천 원으로 각각 5년 전 대비 3.3%, 5.3% 감소

〈표 18〉 서울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단위: 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2009 ~2014)
상용 월급여액	2,623,984	2,774,256	2,921,496	3,007,110	3,168,798	3,199,814	21.9
상용 정액급여	2,535,592	2,686,340	2,846,851	2,938,614	3,092,925	3,114,382	22.8
상용 초과급여	88,391	87,916	74,645	68,496	75,872	85,432	-3.3
상용 특별급여	499,106	528,692	493,464	482,663	478,051	472,861	-5.3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6. 금융 및 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나타남

- 2014년 서울의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은 438만 5천 원으로 가장 많고 2009년 대비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운수업으로 30.8% 증가
 -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438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3만 7천 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5만 9천 원 순
 - 특별급여 또한 월평균 임금과 더불어 금융 및 보험업이 153만1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년 전 대비 4.5% 감소
 - 서울의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의 채용률이 99.5%로 가장 높고, 월평균 임금도 438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호 직종으로 판단됨
 - 미충원율이 40.3%로 가장 높은 운수업은 월평균 임금이 5년 전 대비 30.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적고 특별급여도 11.9% 감소

〈표 19〉 서울시 주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단위: 원, %]

	2009년		2014년		월급여액 증감률 (2009 ~2014)	특별급여 증감률 (2009 ~2014)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상용 월급여액	상용 특별급여		
전 산업	2,623,984	499,106	3,199,814	472,861	21.9	-5.3
제조업	2,543,864	355,504	2,960,599	178,215	16.4	-49.9
건설업	2,826,018	365,508	3,541,547	347,777	25.3	-4.9
도매 및 소매업	2,506,380	352,446	3,166,624	574,561	26.3	63.0
운수업	2,297,897	875,312	3,005,809	771,084	30.8	-11.9
숙박 및 음식점업	1,740,903	282,301	2,050,074	133,871	17.8	-5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34,769	350,056	3,559,187	447,030	21.3	27.7
금융 및 보험업	3,607,554	1,603,012	4,384,537	1,531,482	21.5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26,753	260,673	2,517,066	125,276	18.4	-5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45,438	374,886	4,136,925	445,151	23.7	18.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30,477	237,045	1,796,032	83,954	10.2	-64.6
교육 서비스업	3,113,738	678,187	3,524,248	226,807	13.2	-6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69,759	570,719	2,670,498	514,207	17.7	-9.9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7.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운수업

- 2014년 서울에서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02.4시간(주당 평균 50.6시간)이며 2009년 대비 근로시간은 운수업이 0.8%로 가장 크게 증가
 - 평균 근로시간이 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02.4시간(주당 평균 50.6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4시간(주당 평균 47.9시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1.5시간(주당 평균 45.4시간), 제조업 181시간(주당 평균 45.3시간) 순
 - 2009년 대비 2014년 근로시간이 증가한 부문은 운수업(0.8%), 금융 및 보험업(0.5%), 숙박 및 음식점업(0.4%)

- 2014년 서울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2만 5천 원이며 2009년 대비 시간당 임금은 도매 및 소매업이 31.3%로 가장 크게 증가
 -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 2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만 4천 원, 교육 서비스업 2만 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만 원, 건설업 2만 원 순
 - 2009년 대비 2014년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은 도매 및 소매업(31.3%), 건설업(30.2%), 운수업(29.8%) 순
 - 미충원율이 40.3%로 가장 높은 운수업은 시간당 임금이 29.8% 증가한 반면, 근로시간 역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간당 임금 또한 1만 7천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 서울시 주요 산업별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시간, 원, %]

	2009년		2014년		근로시간 증감률 (2009 ~2014)	시간당임금 증감률 (2009 ~2014)
	총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총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전 산업	184.2	14,245.3	178.9	17,886.0	-2.9	25.6
제조업	189.6	13,417.0	181	16,356.9	-4.5	21.9
건설업	185.4	15,242.8	178.4	19,851.7	-3.8	30.2
도매 및 소매업	187.4	13,374.5	180.3	17,563.1	-3.8	31.3
운수업	178.5	12,873.4	179.9	16,708.2	0.8	29.8
숙박 및 음식점업	201.5	8,639.7	202.4	10,128.8	0.4	17.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6.8	16,599.4	175.9	20,234.2	-0.5	21.9
금융 및 보험업	173.6	20,780.8	174.5	25,126.3	0.5	2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4.7	10,389.6	191.4	13,150.8	-6.5	2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9	18,689.6	175.3	23,599.1	-2.1	26.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9.1	8,622.3	181.5	9,895.5	-4.0	14.8
교육 서비스업	180	17,298.5	173	20,371.4	-3.9	17.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1.6	12,498.7	173.2	15,418.6	-4.6	23.4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